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15일 오후 5시 철원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을 전달.

SOC 예산 6,434억 신속 집행

도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비롯한 건설사업 7개 부문에서 국비 6,434억원을 확보했다.

부문별로는 철도 건설이 3,197억원으로 가장 많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기본설계비(100억원)를 비롯해 원주~제천 중앙선철도(1,500억원), 백마고지~군사분계선을 잇는 경원선 철도(348억원), 포항~삼척 철도(1,246억원), 여주~원주 철도(3억원) 등을 확보했다.

국도·국지도 사업 관련 국비는 1,728억5,000만원이다. 이 중 건설사업은 제2경춘국도(국도 46호선) 등 20개 사업에 1,308억원이며 유지관리 사업은 420억5,000만원이 반영됐

도 7개부문 건설사업 국비확보 공사축소 건설업 활성화 위해 내년 상반기에 60% 조기집행 국비전담팀 구성 추경도 총력

다. 이 밖에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사업 694억2,000만원,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69억4,000만원, 하천 재해예방 및 정비 672억원, 도시재생·도시환경정비 44억원, 선진토지정책 실현 28억5,000만원 등이다.

도는 내년도 공공분야 건설공사 축소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전체 사업비의 60%를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설계용역 발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정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도정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전담팀을 구성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비를 확보한 사업은 초기에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신속히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unny@kvnews.co.kr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연탄 기부 강원건설단체연합회 (회장 오인철)는 최근 강릉 연탄은행 (대표 이철)을 방문,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연탄 5000장 (3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공동주택 건설 지역업체 참여 협약식 공동주택 건설 지역업체 참여 협약식이 14일 동해시청 통상 상담실에서 심규언 시장, 김정일 ES종합건설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내년 2월 선도지역 지정 거쳐 본궤도... 年 10조 투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이번엔 선정된 68곳에 대해 내년 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도지역으로 지정한다.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사항 등을 협의한 이후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게 되고, 예산 지원과 사업 시행 자지정을 통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해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18개 부처, 119개 연계사업에 대한 '부처 협업지원 TF(태스크포스)'도 가동하게 된다.

이번에 탈락한 후보지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재생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사가 공급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따뜻한 재생'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거나 유

'맞춤형 재생' 컨설팅 지원
부동산 가격 모니터링 강화
지속적 상승 지역 시행 유보

보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면 내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에는 연평균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투자한다. 투자 자금은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3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재정은 국비 8000억원, 지방비 5000억원, 부처 연계 사업비 7000억원 등인데, 정부는 재정 규모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지역 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율을 높이기로 했다.

기금의 경우 복합개발 출·유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용자, 수요자중심형 지원 등 도시재생 직접사업 1조1000억원, 공적자금 3조38000억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됐던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기업도 연간 최대 3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다만 공기업 투자는 내부 경영투자심의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투자와 부채 증가 가능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가 이뤄진다.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재정 4638억원, 기금 6801억원 등 총 1조1439억원이 지원되며, 부처 연계사업과 공기업 투자가 더해지면 투자 자금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내년 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비전과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노후 주거지 정비 방안, 혁신 거점 조성 방안,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기게 되고 도시재생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포함된다.

박경남기자 knp@

◆ 특색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5선

경남 통영

문화·관광·해양산업 허브 재도약

경남 통영은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문화·관광·해양산업 허브로 거듭난다. 총 1조1041억원을 들여 폐조선소 부지에 복합문화시설, 관광영어센터,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크루즈마리나 창업센터, 기업 지원 융복합 R&D(연구개발)센터 등을 설치해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경북 영양

전통시장·양조장 '지역자산' 활용

경북 영양은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주민 화합,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전통시장·양조장 등 지역자산을 도시재생에 활용한다. 총사업비 271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전통시장 주변을 정비하는 동시에 공공주차장을 조성한다.

경기 광명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 씨앗 뿌리

경기 광명은 상습 침수지 내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 해제

지역을 되살리는 게 핵심이다. 총 444억원을 들여 원주민 이주·순환주택과 청년주택,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인천 부평

스마트 도시 선도하는 '부평 11번가'

인천 부평은 미군부대 반환, 생태하천 복원, 문화특화도시사업 등 도시재생의 영역으로 끌어올린다. 경제부평 딱거리 타운과 혁신부평 동지마을을 조성, 문화골로 축제 활성화, 혁신부평 주민상인 역량 강화, 스마트 부평 선도사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총사업비는 1576억원 규모.

경기 안양

주민 주도 신개념 주거트렌드 도입

경기 안양은 재개발 해제지역 주민 주도로 신개념 주거트렌드를 도입한다.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으로 선정된 만큼 총사업비 규모는 178억원으로 크지 않지만 발달공유정원 등 업사이클 도시정원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공복합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등도 운영한다.

박경남기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선정지역 리스트·주요내용

연번	시도	대상지	사업명	선정 방식	사업 유형	
1	북구	구포 이음		중앙	중심 시가지형	
2	부산	영도구	배리배리 곳 봉산마을 복덕방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3	(4)	사하구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3)	주거지 지원형	
4	동구	래우고(來道街) 플라잉		(3)	일반 근린형	
5	대구	서구	원(院)하는 대(院)로 통(洞)네마을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6	(3)	북구	지연을 멈고 마을을 나누는 침실에 반하다	(3)	주거지 지원형	
7	동구	소소향 이야기 소북골		(3)	일반 근린형	
8	부평구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중앙	중심 시가지형	
9	동구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 정원마을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10	남동구	만수무강 만부마을		(3)	주거지 지원형	
11	서구	서구 상생마을		(3)	일반 근린형	
12	동구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13	서구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천작 농성골		(3)	주거지 지원형	
14	광진구	아르신이 가꾸는 마을, 꽃보다 도산		(3)	일반 근린형	
15	남구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살고 싶은 알뜰		중앙	중심 시가지형	
16	대덕구	지역활성화의 새어울음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 UP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17	대전	유성구	어른통 일벌(Bees) Share Platform	(3)	주거지 지원형	
18	(4)	동구	기호 새마을 살리기	(3)	일반 근린형	
19	충주	대전의 중심 중촌(中村), 주민 맞춤형 재생 날개 짓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20	북구	화봉 꿈마루길		(3)	주거지 지원형	
21	남구	삼호 동우리, 사랑과 협재를 품다		(3)	일반 근린형	
22	충주	군계일화(群鷄一鶴), 화성		중앙	중심 시가지형	
23	세종	초지원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초지원 Ver. 2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24	수원시	수원시 도시재생, 125만 수원의 관문으로 통하다		(3)	주거지 지원형	
25	안양시	Upgrade+ Recycle Garden, 정원마을 박달 트랙		(3)	일반 근린형	
26	광명시	광명 도시재생 씨앗, SUSTAINABLE GREEN VILLAGE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27	남양주시	SLOW & SMART CITY, 남양주 원도심 역사문화재생		(4)	중심 시가지형	
28	(8)	시흥시	정원동 어울림 스마트인촌도시		(3)	주거지 지원형
29	고양시	함께 만드는 신타 놀터 "당당한 워킹 사람들"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30	안양시	안양8동 두루미 명랑마을		(3)	주거지 지원형	
31	고양시	화전지역 상생 활주로 "활활활"		(3)	일반 근린형	
32	김천시	올림픽의 도시, KT·시내 옥천동의 재도약		중앙	중심 시가지형	
33	동해시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34	(4)	태백시	태백산자락 장성 단단마을	(3)	주거지 지원형	
35	춘천시	공유·공생·공감 악사리 문화마을		(3)	일반 근린형	
36	횡성시	함몰을 멈추어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길 우임동		중앙	중심 시가지형	
37	충북	제천시	제천역 사립마을의 상생 이야기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38	(4)	충주시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마을	(3)	주거지 지원형	
39	청주시	기적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유년(幼年)문화		(3)	일반 근린형	
40	천안시	新경제교동 중심의 스마트복합거점공간 천안역세권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41	충남	보령시	함께 가꾸는 '공촌마을 녹색 행복공간'	(3)	주거지 지원형	
42	(4)	공주시	역사를 나누고 삶을 누리는 옥룡동 마을 르네상스	(3)	일반 근린형	
43	천안시	남산리구의 오래된 미래-역사와 지역이 함께하는 고려천화마을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44	군산시	다시열린 '군산의 물길' 그리고 '보편성장으로 밀려오는 3개의 큰 물결'		중앙	중심 시가지형	
45	익산시	역사(歷史)문화(文化)로		(3)	주거지 지원형	
46	전북	정읍시	지역특화산업(역·차·만·술)으로 살리는 시민경제도시 정읍!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47	(6)	군산시	공공 화석이 살아있는 장전(津津)이 지구	(3)	주거지 지원형	
48	완주군	만경강변 햇살 가득 동창(東窓)마을		(3)	일반 근린형	
49	전주시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서화동 마을		(3)	주거지 지원형	
50	목포시	1897개항문화거리		중앙	중심 시가지형	
51	순천시	몽미락(夢味樂)이 있는 청사들		(2)	주거지 지원형	
52	나주시	도란도란 만들어가는 역전마을 도시재생 이야기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53	목포시	보리마당		(3)	주거지 지원형	
54	순천시	비타(vital)민(民), 길마골		(3)	일반 근린형	
55	영진시	사람, 별, 말이 어울리는 영진대밭		중앙	중심 시가지형	
56	영양군	일·살·꿈의 중심 '영양민정 행복마을'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57	경북	포항시	새로운 시작! 함께 채워가는 미래도시 포항	(2)	중심 시가지형	
58	(6)	영주시	남산선비마을 인의예지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59	경산시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3)	주거지 지원형	
60	상주시	경상도의 근원을 찾아가는 뿌리생 삼주		(3)	일반 근린형	
61	사천시	바다마실, 삼천포에(夢) 빠지다		중앙	중심 시가지형	
62	김해시	포용과 화합의 무계		(2)	중심 시가지형	
63	통영시	문화·관광·해양산업 Hub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광역	경제 기반형	
64	(6)	하동군	넉넉하고 건강한 하동마을로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65	거제시	1만4천 피란살이 청송포 유린다큐		(3)	주거지 지원형	
66	밀양시	밀양 원도심, 밀양역 열매 짓다		(3)	일반 근린형	
67	제주	제주시	곱들락한 신선마을 만들기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68	(2)	서귀포시	흔디 손잡으면! 지리산 힐링마을 만들기	(2)	주거지 지원형	

올 강원 건설 수주 19% 감소... 전국 감소폭의 6배나 높아

(3.7%)

올 들어 10월까지 강원지역 건설수주액이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엔 부동산 경기 위축과 공공건설 투자 축소가 예상돼 강원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건설수주액은 3조5300억원가량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액 4조3600억원보다 19% 정도 감소했다.

국내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1~10월 수주액 3조5300억 그쳐 공공부문 45% 줄어 '위축 심각' '수주 주도' 민간도 감소세 전환 침체 속도 빨라져 사업발굴 절실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도내 건설경기 위축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빠른 편이다. 실제 올해 10월까지 전국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했다. 도내 건설

수주 감소폭이 전국의 감소폭보다 6배 이상 높을 셈이다.

도내 건설수주액 감소는 공공부문에서 두드러진다. 올해 10월까지 도내 공공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5.5% 낮아졌다.

특히 10월 도내 공공건설 수주액은 101억원에 불과해 지난해 10월 수주액 1815억원과 비교해 94.4% 떨어졌다.

도내 건설수주를 이끌던 민간수주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 9월까지 도내 민간수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6% 높았

다. 하지만 10월 누적기준으로는 6.1% 감소로 돌아섰다. 10월 민간수주액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81.7% 떨어진 2049억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도내 건설경기 침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도가 내년엔 확보한 국비 예산 규모는 5조3025억원이다. 당초 목표액인 5조2000억원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4년 만에 국비 예산 규모가 6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특히 도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되지 않았다.

도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강릉~제진철도와 제천~삼척 고속도로, 춘천~철원 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 연장) 등이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나마 춘천~속초 철도 관련 예산이 100억원 확보된 게 위안거리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내 건설수주액이 감소하고 있고 내년엔 건설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면서 "대형 건설사업을 발굴하고 도내 건설사의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개통 일주일 앞둔 KTX 강릉역... 손님맞이 준비 한창

22일 KTX 경강선(서울-강릉) 개통을 앞두고 14일 오전 강원도 강릉역 KTX 역사에서 근로자들이 마무리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2년 7월 착공한 경강선은 기존 노선을 고속화 노선으로 재정비하고 원주-강릉 구간을 새로 신설했다. KTX 경강선 개통으로 서울-강릉 100분 시대 가 열린다.

강릉=안윤수기자 ays77@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개발 '탄력'

오늘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 조성 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 승인 고시

동해안권의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15일자로 승인 고시된다. 지구면적을 41만5405㎡에서 38만8910㎡로 변경, 2만6495㎡가 줄었다. 기업 입주와 접근이 어려운 녹지지역 및 진입도로 부지 등을 반영해 규모가 감소했으나 효율적인 산업지구로 변경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옥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벌였다. 환경영향평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하천수사용허가 등 행정적 절차가 이달 완료됨에 따라 승인받게 됐다.

현재 옥계지구 토지보상은 보상면적 55%가 계약체결을 완료한 상태이다.

옥계지구 개발을 위한 도비 185억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이른 시일 내에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14일 "앞으로 청정산업 이미지에 적합한 첨단소재 융·복합 산업,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3D 프린팅 산업, 해안침식 등 해양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안방재센터 등 친환경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주신화월드 리조트에 '외국인 전용키노 개장' 행정절차 진행